



**제 목 : 2020년도 공인회계사는 1,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
입니다.**

- ◇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*(위원장: 금융위원회 부위원장)는 '19.11.18일(월)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,100명으로 의결하였음

* 위원회 구성(총 11명): 금융위 부위원장(위원장), 금융위 금융정책국장·자본시장 정책관, 금감원 전문심의위원, 위촉직 위원 7명(학계 3명, 기업 2명, 회계업계 2명)

1.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여건

수요 측면

- 경제성장을,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추이 등을 고려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4년간 약 4.22~4.80% 증가 예상
 - 新외부감사법 시행('18.11월)으로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
 -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^①,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^②, 표준감사시간제^③ 등의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
 - 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비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(상장사, 최근 3년기준)은 자유선임시 대비 **약 40% 높음**
 -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감사업무량이 **36% 증가**(국내기업 미국 상장사 사례 참고)
 - ③ 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마련('19.2월)
 - 회계법인外 일반기업,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
 -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
- * IFRS 9(금융상품) 등 신규 기준서 도입,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등

공급 측면

□ '19.3월말 기준, 등록 회계사는 총 20,884명('05년 8,485명)

-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남에도, 그 중 회계법인·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*은 감소 추세였으나 '19년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

* ('05)73.3%(6,218/8,485) → ('10)67.7%(9,024/13,332) → ('17)60.5%(11,681/19,309) → ('18)60.4%(12,125/20,059) → ('19)61.7%(12,877/20,884)

□ 장래인구 추계^①(만 18~19세), 대학입학자 수 추이^② 등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

① 634천명 ('17) → 622 ('18) → 610 ('19) → 555 ('20) → 495 ('21) → 476 ('22)

② 356천명 ('15) → 348 ('16) → 343 ('17) → 343 ('18) → 343 ('19)

- 다만,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,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'20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성

2. 2020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

□ 예측된 수요(1,138명*, ①+②)를 기반으로, 최종인원과 최소예정인원간 차이(최근 3년, 평균 약 42명)를 감안하여 '1,100명'으로 결정 (전년대비 100명 ↑)

* ① 외부감사 인력 수요 :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,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회계법인·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(12,877명) 대비 약 8.67%(1,116명) 증가 예상

② 비감사 업무 수요 : 회계법인의 비감사 업무에 필요한 과거 회계사 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22명으로 추정

- 추가로 수요 제약요인^①과 흡수가능 요인^②도 고려 가능하나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판단

① 시험 응시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면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, 최근 회계법인의 처우개선에 따른 실무인력 이탈 완화, 내년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예상 규모는 금년 수준 유지 등

② 시험 적령기 인구(25~29세) 추이 감안시 향후 2년이 공인회계사 수요 흡수가 가능한 기간, '20년 시험 응시 인원은 '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, 중소회계법인 및 기업들의 수요 흡수 여력 등

3. 손병두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당부사항

- ① 회계법인들은 감사업무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및 업계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
- ②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선발인원의 급변은 바람직하지 않음

< 21년 이후 선발인원관련 고려 사항 >

- ① 21년 이후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, 전년대비 큰 폭의 변화 (예: $\pm 5\%$)는 바람직하지 않음
- ② 22년부터 시험적령기 인구(25~29세)가 순감소하는 통계는 향후 선발 인원 결정시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보임

- ③ 現 시험제도*가 시행된지 10년이 더 지난만큼,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* '07년에 학점이수제, 부분합격제 등 도입

- ④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 내·외부의 신뢰가 생명 → 지난 7월 시험 부정출제 의혹은 매우 아쉬움이 남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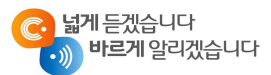
- 금감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, 출제 검증 강화 등 시험관리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람

[별첨] 공인회계사 선발 관련 그동안의 경과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공인회계사 선발 관련 그동안의 경과

- 외환위기 이후 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'01년에 선발 인원을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(1,000명)으로 확대, '06년까지 유지
 - '00년 이전에는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'임용'제도로 운영
 - 외부감사,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사 수요의 저변이 재무 자문 등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01년에 선발인원 큰 폭 확대
 -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*하에 '06년까지 매년 1,000명 수준으로 선발

*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('99.4.9., 규제개혁위원회)

연 도	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
선발예정인원	280	350	450	500		550	1,000					
실제선발인원	282	356	453	511	505	555	1,014	1,006	1,003	1,001	1,004	1,007

- '07년도부터 자격제도로 전환, '절대평가' 제도를 도입하고, 선발 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사전 공고
 - '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용역결과*를 고려하여 750명으로 결정
 - * 舊재경부가 의뢰하여 한국회계학회가 수행한 「공인회계사선발인원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」('05.8)에서 적정 인원을 단기 750명, 장기 850명으로 도출
 - '08년, '09년에는 전년 대비 50명씩 확대('08년 800명 → '09년 850명)

연 도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
최소선발예정인원	750	800	850										1,000
실제선발인원	830	1,040	936	953	961	998	904	886	917	909	915	904	1,009

- '09년 이후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,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
 - '19년에는 회계개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11년만에 1,000명으로 증원 (전년대비 150명 ↑)